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10만명

metro
메트로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김희선 중국 예능프로 출연

편히 잠드세요 세월호 침몰 사고 30일째이자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강원 춘천시청 내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춘천기계공고 학생들이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고 있다 /연합

세월호 아픔 딛고 다시 일어서자

"반성과 개혁으로 새로운 질서를"…한 목소리 새 한국 국민운동·생명안전고발센터 활동

15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넘어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 "다시 일어서자"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다.

◆ 새로운 한국 국민운동 발족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서경석 목사, 박홍 신부,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등 150여 명이 모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태는 우리사회의 공직부패와 정경유착, 공동체윤리·책임윤리의 부재, 저급한 기업문화, 안전불감증, 무질서, 경시현상, 고발정신 부재 등이 누적돼 만들어진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반성과 개혁에서 시작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일각에 세월호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회분란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음을 개탄한다"며 "정치권도 성숙한 초당적 대처를 통해 상처 치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종교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만든 '생명안전고발센터'가 서울 마포구 생명문화 사무실에 문을 열었다. 생명안전고발센터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곳곳에 만연한 안전 위험 요소를 시민들이 다시서 감시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이 있는 생명한국'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 큰 국가적 위기 확집 수도"

대형 재난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와 대형 건물 중심으로 대규모 피난 훈련도 이어지고 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과 대학들은 내달 9일까지 각 학교 기숙사 소방 안전점검과 업무 작성 화재 대피 훈련을 시행한다. 13일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트레이드타워와 아셈타워에서 사상 처음으로 입주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피훈련이 벌어졌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 관계부처도 다양한 안전 대책을 내 놓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시민들도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김모(37)씨는 "이런 안전 훈련이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규제하는 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영업자 박모(45)씨도 "세월호 참사 충격에 쉽게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최근 한달간 손님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도 사실"이라며 "계속 슬픔에 잠겨 있다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큰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호흡만 해도 충전되는 나노발전기 개발

호흡 등 작은 움직임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나노발전기가 개발됐다. 이를 몸에 붙이고 다니면 자동충전이 가능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KAIST(총장 강성모) 신소재공학과 이건재 교수팀은 레이저 박리 전사기술과 유연한 압전박막 소재를 활용해 기존보다 40배 가량 높은 효율의 나노발전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4월 23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나노발전기는 유연한 나노소재에 미세한 압력이나 구부러짐이 가해질 때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기술이다. 전선과 배터리 없이 에너지공급이 가능해 휴대하는 전자제품은 물론 심장 박동기처럼 몸속에 집어넣는 기기나 로봇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교수 연구팀은 고온에서 결정화된 고효율 압전박막물질을 레이저 상용화된 레이저 박리기술을 이용해 딱딱한 기판에서 플라스틱 기판으로 전사,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면서도 대면적으로 양산 가능성을 높였다.

이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고효율의 나노발전기술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바람, 진동, 소리와 같은 미세한 에너지는 물론 심장박동, 혈액흐름, 근육수축 여완 등 사람 몸에서 발생되는 생체역학적 힘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무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선장 등 4명 살인혐의 적용

최고 사형도 가능 선원 15명 전원 기소 광주지법서 재판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이준석(69) 선장, 1·2등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으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등 항해사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은 운항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에게는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가장 먼저 탈출해 공분을 샀다.

/정도준기자 mkdn@metroseoul.co.kr

이희호 이사 5·18묘지 참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15일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 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15일 정수장학회와의 관련성을 허위 보도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향신문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여서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과거사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외에는 정정보도에 따른 이익이 없거나 기자의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조현정기자 JHJ

천상천하 유아독존 식약처?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경제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즉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돼 있는 정부부처다. 그래서 담당 기자 입장에서도 국민 중의 한 사람 입장에서도 식약처가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 전 식약처에서 예일이 하나 왔다.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충북 오송에서 진행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보다 어이가 없었다. 기념식이 열리기 하루 전, 그것도 늦은 오후에야 예일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식약처의 태도가 일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에서 '처'로 승격된 식약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빠지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늘어났다. 기자를 만나면 '자기들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인상'이라고 하소연을 할 정도로 말이다.

게다가 기자들에게도 뻐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취재를 위해 전화를 해도 한 번에 연결되지 않는다. 담당자를 찾아 전화를 해도 자리를 비울 때가 많고 메모를 남겨도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더욱이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처장의 동정을 자료와 사진으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정부 관리들의 무능과 불성실한 태도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처로 바뀌면서 식약처의 권한과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더 커지고 무거워졌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후보 등록 첫 날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왼쪽)가 선관위 관계자에게 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림막 없는 기표대 도입… 금·토 사전투표

6·4 지방선거 달라진 것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가 15일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선관위원회에서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된다. 사전투표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이다. 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된다.

로또·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도 달라진다. 이는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가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게재하도록 했다.

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가림막을 들어올리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둬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김민환기자

뉴스&뉴스

반크, 과거사 진실 담은 일어 영상 제작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15일 일본인들에게 과거사 진실을 바르게 알리고자 일본어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고 밝혔다.

제목은 '일본이 가야 하는 길'이며 14분55초 분량이다. 영상은 독일과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한 뒤 전후 과거사에 대한 책임 등 상반된 길을 걷는 양국을 적나라하게 비교했다.

민추협 창립 30주년… 국회서 기념식

●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재야권 민주화 운동의 산실 '민주화추진협의회'가 15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공동이사장인 권노갑·김덕룡 전 의원, 공동회장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박광태 전 광주시장 등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람이 중심… 안전한 서울 만들겠다"

박원순 재선 도전 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다시 4년의 기회를 준다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미처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6·4 지방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우선인 새로운 서울을 향해 전진하겠다"면서 "사람이 안전한 서울, 사람이 따뜻한 서울, 사람이 꿈꾸고 참조하는 서울, 사람과 도시가 함께 숨 쉬는 서울, 반듯하고 품격있는 서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이 참혹한 비극은 대한민국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막중한 시정을 책임지면서 실패와 실수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되새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70퍼기 넘는 정책토론회, 7000여 건의 행정정보 공개, 140만명이 다녀간 시민청, 20조원의 빚을 연말까지 7조원까지 줄이는 등 많은 일을 했다"고 자평했다.

/김민준기자

장남 체포 특별추적팀 구성

검거 경찰관에 1계급 특진… 유병언 일가 재산환수 검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등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1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체포하기 위해 특별추적팀을 구성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추적팀은 인천지검 소속 강력부와 [illegible] 추적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전날 소환에 불응한 대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A급 지명수배'를 내린 검찰은 대균씨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적팀이) 경북 등 전국 지방 각지에 나가 확인을 하고 있고 제보가 곳곳에서 들어와 종합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현재 프랑스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파견해 강제구인을 위한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남 혁기(4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서는 미국 국토안보조사국(HSI)에 체류자격 취소를 요청했다.

유 전 회장은 16일 오전 10시로 소환이 예정된 상태다. 그러나 장남 등 자녀 모두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잠적한 상황이어서 유 전 회장이 검찰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잠적할 경우 재산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 15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서 해양경찰들이 대균씨의 사진이 담긴 수배지를 들고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잠수사 세번째 긴급 이송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가 마비성 통증으로 경남 사천 삼천포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민간 잠수사 염모(57)씨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으며 현재 고압산소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라고 15일 병원 측은 밝혔다.

염씨는 전날 세월호 수색작업 중 머리·어깨·골반 등의 마비성 통증으로 감압챔버 치료와 해군 청해진함 감압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았다.

민간 잠수사가 잠수병 증상으로 긴급 이송된 것은 지난 1일과 2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병원은 염씨에 대해 혈액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고압산소 치료와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수액치료 등을 벌였다. 염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회복 중이다.

/윤다혜기자 [illegible]

실종자 가족 위한 조립주택 설치

세월호 침몰 이후 한 달째 진도에 남아 애를 태우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기로 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5일 "실종자 가족들의 체류환경 개선을 위해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 팽목항에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까지 우선 10개동을 설치하고 수요를 고려해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조립식 주택은 면적 18㎡ 규모로 TV와 냉난방시설 등을 갖춘다.

또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바지선에 보관 중인 잠수사용 식료품의 변질 우려에 대비해 이날부터 식약처 관계자를 현장에 배치해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해상 수색에서 구명조끼 등 6점, 진도 해안가에서 2점을 발견해 모두 8점의 유실물을 수거했다.

/윤다혜기자

귀여운 시위 15일 오전 서울 맥도날드 신촌점 앞에서 열린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날 한국행동'에서 참가자들이 생활임금 지급과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당·강남역 등 저류조 강화

서울시, 빗물탱크 확장 등 풍수해 안전대책 가동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서울 곳곳에 조성된 6만5900t 규모의 빗물 저장공간이 올해 처음 활용된다.

서울시는 15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 대책을 전담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사당역·강남역·도림천·한강로·광화문 등 5개 특별관리지역의 저류 능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풍수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11년 하천 범람으로 피해를 본 도림천 일대는 올해부터 서울대 저류 공간의 도움을 받게 된다. 서울대 안에 있는 버들골(2만t), 공대폭포(5000t) 저류 공간은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된다. 정문 앞 4만t의 저류 공간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올해는 임시 저류조로 활용된다.

임시 저류조로 활용해 온 광화문 세종로 지하주차장에는 차수문과 집수정이 설치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류조로 이용된다.

강남역 일대의 침수 피해를 줄이고자 서초구 용허리 공원에 1만5000t 규모의 빗물 저류조를 설치했다.

사당역 일대는 남태령 방향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최대 6만3000t까지 담을 수 있는 사당역 환승센터를 올해도 저류조로 활용한다. 한강로는 용산 만초천의 수위를 높였던 신계동 철도교량 개선으로 침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 양원초등학교 일대, 을지로입구 등 34개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펌프장 증설, 임시 저류조 확보, CCTV 활용 등 대책을 강구했다. /김현준기자 mkim@metroseoul.co.kr

교육감 선거도 본격 시동

문용린·고승덕·조희연 첫날 후보 등록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서울에서는 문용린 현 교육감, 고승덕 변호사,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3명이 이날 오전 서울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했다. 부산에서는 임혜경 현 교육감과 박영연 전 부경대 총장, 김석준 부산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신현철 전 부성고 교장이 등록을 마쳤다.

광주에서는 장휘국 현 교육감이 가장 먼저 등록했다. 양형일 전 조선대총장,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 의장이 차례로 후보등록을 했다.

전북에서는 김승환 현 도교육감과 이미영 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남은 재선에 도전하는 장만채 현 도교육감이 후보등록을 했다.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유다혜기자 yjh@

동작대교 '피어39' 외벽 뚫려 일부 침수

서울 서초구 동작대교 남단 수상구조물인 '피어39' 외벽에 구멍이 뚫리면서 1m가량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15일 오전 10시14분 피어39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구조물 왼쪽 바닥에 구멍이 뚫리면서 물이 새어들어 와 본체가 2.8도가량 기운 것을 확인하고 임시로 구멍을 막았다.

피어39는 가로 50m, 세로 23m 바지선 형태의 3층짜리 수상구조물로 보트계류장, 사무실, 연회장 등으로 사용되나 법적 분쟁에 휘말려 3년 전부터 휴업 상태다.

사고 당시 피어39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조물 하단부는 물에 뜰 수 있도록 넓이 6㎡, 높이 1.8m의 격실 24개로 이뤄져 있는데 소방당국은 왼쪽 앞 격실이 파손되는 바람에 강물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다혜기자

성매매 조직 일가족 덜미

가족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일삼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출장 마사지를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박모(51)씨와 박씨의 사위 배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성매매 일선 자금을 관리한 박씨의 딸(32)과 성매매 여성 김모(33)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9년부터 성매매 선단지를 모텔 밀집지역 등에 배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5년 4개월여간 28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박씨는 자신의 딸, 사위와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다혜기자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로 21~23일 점심때 시범운영

서울시는 덕수궁길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21~23일 대한문~정동교회 앞 원형분수대 310m 구간을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 한해 보행전용거리로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보행전용거리 조성으로 직장인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돌담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 시간, 구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준기자

스승의 날 세족식 스승의 날인 15일 오후 서울 신정교 옆 C축구장에서 열린 세족식에서 계부중학교 교사들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 /연합뉴스

우표전시회 기념우표 발행

서울지방우정청은 5월7일부터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필라코리아 2014 세계우표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우표를 16일 발행했다. 기념우표에는 민화 '화회당 한복' 등을 담아 5종 242만4000장이 발행됐다.

한국 온라인 교육 현황 공유

홍콩폴리텍대학교 방문단이 한국의 온라인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최근 경희사이버대학교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HD멀티스튜디오 체험과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교육 운영 방식과 성과 등을 공유했다.

차세대 개발교육 워크숍

코이카 ODA교육원은 14일 코이카 본부에서 시민사회 등 관련 단체 ODA 실무 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국내 '차세대 개발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코이카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강북구, '춤추는 허수아비' 공연

서울시 강북구는 다음달 13~14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세종문화회관 지역순회공연 '춤추는 허수아비'를 공연한다.

5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관람료는 R석 1만원, S석 8000원, A석 5000원.

'공유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 영등포구가 공유 활성화를 위한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6월20일까지다. 공모 결과는 심의를 거쳐 7월 중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강남구, 저소득층 무료 검진

서울시 강남구가 오는 17~18일 양일간 지역 저소득주민 5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구는 건강검진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을 위해 혈액 혈압 혈당검사 등 기본검사와 MRI·MRA 등 고가의 정밀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metro Brazil

Água do Cantareira acabar durante a C

저수지 고갈… "월드컵 기간 물 비상"

브라질 상파울루주가 월드컵 앞두고 물부족 위기에 봉착했다. 칸타레이라 저수 시스템의 저수량이 8.1%로 떨어졌기 때문. 물과 여름 전까지만 해도 10.1%였던 저수량이 급격히 하락하자 주 정부는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20일 연속 줄어지는 칸타레이라 시스템의 저수량은 지난 주에 만 1.2%p 하락하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되면 월드컵이 한창인 6월 말에는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metro Franca

François Hollande plus bas que jamais

올랑드 지지율 18%… 재임 중 최악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임기간 중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웨이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의 5월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2%p 감소했다. 응답자 중 18%가 대통령 뜻이가 관측한다고 답했다. 이는 그가 집권한 2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오피니언웨이 관계자는 "올랑드 대통령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 서툰 모습을 보인게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신한 배 위에 그린 아기 사랑

블로그에 '태아 입체그림 일기' 올린 예비 엄마…"붓놀림에 아이 꿈틀"

일러스트레이터인 위펜시(衛芬希)는 임신한 뒤 중국에서 블로그 스타가 됐다. 볼록한 배에 직접 그린 '태아 입체그림일기'를 블로그에 올린 덕분이다.

위펜시는 "다른 임신부들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임신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기록하고 싶었다. 또 하루하루 커지기는 배를 보며 머릿속에서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나중에 이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8개월간 임신한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그림 9점을 배에 그렸다. 그의 멋진 손놀림으로 생동감 있는 아기의 모습들이 배 위에서 탄생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림 덕에 팬들도 많이 생겼고, 많은 예비 엄마들의 부러움도 사고 있다.

위펜시는 베이징 중국전매대학교(中國傳媒大學)에서 미술디자인을 전공했다.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 지난해 아이를 갖게 됐다. 그는 임신 소식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임신으로 예술 창작 활동을 중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뱃속의 태아는 위펜시에게 새로운 예술 혼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밸리 페인팅'을 하기 전 먼저 컴퓨터에 스케치를 한 후 거울을 잘 세워두고 배에 스케치를 한다. 그 다음 스케치를 따라 머릿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그린다. 한 번 그리는 데 3~5시간 정도 걸린다. 그의 화풍은 판화인 하얀 색과 검은색 위주의 어두운 분위기였지만 태아가 성장하면서 모성애와 따뜻함이 느껴지는 밝은 그림으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그린 그림에서는 거의 발육을 마친 아기가 알 껍데기 안에 얌전히 누워 밖으로 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그는 "지금 새 생명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이어 "그림을 그릴 때면 아이가 엄마의 그림을 보고 싶은 듯 더 활발히 움직인다"며 "그림을 통해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위펜시의 그림에서 사랑이 넘쳐 흐른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그림이 이렇게나 많다니 행복한 아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를 응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Якутский инжен броневик будущ

달탐사 로봇 닮은 차세대 차량 눈길

최근 러시아 엔트랄 건소시엄이 주최한 '21세기형 전투차량 디자인 공모대회'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젊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대회에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의 신진 디자이너 수백여 명이 참가했다.

인트랄 컨소시엄의 아나톨리 레이리흐 대표는 "차세대 전투차량을 표현할 수 있는 개성 있는 디자인이 필요했다"며 "시대를 앞서가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찾고 싶었다"고 대회 주최 이유를 밝혔다.

레이리흐 대표는 "디자인 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뛰어난 실력에 비해 창의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개성 넘치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참여했다"며 "우수작 후보가 많아 어떤 작품을 뽑아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전투차량과 흡사한 디자인도 있었지만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기발한 작품이 꽤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 우승은 디자이너 알렉산드르 가비쉐프가 차지했다. 가비쉐프는 우승 상금으로 7만 루블(약 200만원)을 받았다.

그는 "평소 전기장치 다루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장갑차 모형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우연히 대회에 참가했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비쉐프는 또한 자신의 디자인은 외관보다는 성능을 강조한 작품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내 장갑차가 달 탐사 로봇을 닮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투 시 적군에게 발견되지 않고 민첩하게 이동하면서 수륙양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리야 부아노바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 4장 이하로

지난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이 5년 만에 4장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제활동 1인당 보유 신용카드는 3.9장으로 2007년 3.7장 이래 처음으로 4장 미만으로 내려갔다.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2009년 4.4장, 2010년 4.7장, 2011년 4.9장으로 급속히 늘다가 2012년 4.6장으로 줄어든 바 있다.

금융당국은 휴면 카드 정리 작업과 체크카드 활성화, 카드사의 부가혜택 축소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카드를 정리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삼성카드에서 전산 마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카드사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져 1인당 3장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market index <15일>

코스피	코스닥
2010.20 (-0.63)	561.75 (+1.46)

금리	환율
2.92 (-0.02)	1026.00 (+0.50)

뉴스&뉴스

아이파크백화점 선글라스 대전
초여름 더위가 다가온 15일 용산 아이파크백화점 패션관에서 선글라스를 진열하고 있다.
/아이파크 백화점 제공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

● 삼성그룹은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등 10개 계열사 협력사의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대덕전자, 이오테크닉스, 동양이엔피, 부전전자 등 삼성전자가 선정한 강소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 협력사 122개사, 2차 협력사 23개사 등 총 290여개 협력사가 참여해 현장에서 2000여명의 신입, 경력직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삼성은 이날 박람회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등 6개 직군별 채용기업관을 운영했다.

/이재웅기자 [illegible]

스마트폰뱅킹 4천만 돌파

● 스마트폰뱅킹이 도입된지 4년 6개월 만에 등록 고객수가 4000만명을 넘어섰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수는 4034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8.5%(316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내 17개 시중은행, HSBC, 우체국 고객의 스마트폰뱅킹 등록자를 합한 것이다. 스마트폰뱅킹 등록 고객은 1년 전(2807만명)과 비교해서 44%나 늘었다.

/김은지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회장 겸 발행인	남궁호
사장 겸 편집인	김종희
편집국장	조인표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2-2100
독자센터	02)721-0805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illegible]

스마트폰 사용땐 뇌종양 발생 3배↑

佛 대학교수 연구논문서 밝혀… 비즈니스맨 '치명적'

스마트폰을 일정시간 이상 통화할 경우 뇌종양 발병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업무상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비즈니스맨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의학 잡지(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ecine)는 이같은 내용의 프랑스 보르도 대학 교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사용과 뇌종양 발생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이자벨 발디(Isavelle Baldi) 박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9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생 일정 누적시간 이상 핸드폰 통화에 귀가 노출 될 경우 뇌종양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논문을 통해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직접 귀에 대고 896시간 이상 통화한 경우 뇌종양 발병 위험성이 2~3배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핸드폰 사용 누적시간이 위의 시간을 초과할 경우 뇌막종 발병 위험도 2배에서 3배 증가한다. 하루로 나눠 비교해보면 최소 5년동안 매일 30분씩 통화할 경우 양성 및 악성 뇌종양이 발병할 가능성이 모두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또 이자벨 박사는 휴대전화를 사용한 전체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통화 누적시간이 896시간이라면 그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총 사용 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간에 상관없이 핸드폰 통화시 직접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된 누적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발디 박사는 업무상 고객·상사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해야 하는 영업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뇌종양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일반인들의 스마트폰 통화시간이 하루 평균 5분 정도에 불과했으나 비즈니스맨들은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자벨 박사는 "기간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전자파에 노출된 누적시간에 따라 발병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2000년 이후 스마트폰 사용 연령대가 급속히 낮아지면서 누적 사용시간이 급격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자벨 박사는 논문의 결론에서 휴대폰 사용량이 뇌종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량과 뇌질환 발병율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정수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 규명은 후에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송주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브라질월드컵 공식 기념주화 15일 오전 서울 브라질대사관에서 모델들이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공식 기념주화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물관이야… 은행이야…"

문화를 품은 금융권 가족고객 유혹

금융권이 고객과 문화 공유의장을 넓히기 위해 박물관과 도서관 등을 잇따라 열고 가족 단위 고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제주도에 아름인 도서관을 열었다.

아름인 도서관은 신한카드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와 함께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 신한카드는 직원들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아름인 금융교실'과 함께 어린이 독서 교육, 봉사활동, 도서 기증 등 신한카드와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장(場)을 꾸려갈 예정이다.

여행과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모아둔 도서관도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 14일 여행 전문 도서관 '트래블 라이브러리(Travel Library)'을 열었다. 지난해 문을 연 '디자인 라이브러리'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전문 도서관 '트래블 라이브러리'는 1만4000여권의 여행 관련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서적들은 위도와 경도처럼 테마와 지역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13개의 주요 테마와 전 세계 196개국을 망라한 지역별로 분류돼 있다.

외환은행는 세계 45개국 통화의 화폐실물 및 희귀 화폐를 모아둔 '화폐전시관(Gallery of Money)'을 개관했다.

명동 외환은행 본점 지하 1층에 새롭게 개관된 전시관은 45개국 통화 실물을 비롯해 우리나라 원화의 디자인 변경시 제작된 초판 인쇄본, 동일 일련번호를 가진 1000원과 1만원권 등 희귀한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또 해외여행시 주의가 요구되는 위조지폐와 위변조분석실이 함께 있어 국가별 위조방지 요소 등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SK 1인당 이익 최고

SK종합화학이 직원 1명당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꼽혔다.

15일 위민포럼 사람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매출액 상위 100대기업(공기업, 금융권 제외) 중 65개사의 2013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원1인당 영업이익 평균은 9552만원으로 나타났다.

SK종합화학이 6억9446만원의 1인당 영업이익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고려아연이 5억1700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현대글로비스(4억7753만원), SK텔레콤(4억6987만원), S-Oil(4억2458만원), 삼성토탈(3억8789만원), 대림코퍼레이션(3억6714만원), SK가스(3억340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SK하이닉스(23.1%)다. SK텔레콤(15.3%), 고려아연(14.5%), 삼성전자(13.8%), 현대모비스(13%), 현대자동차(8.9%), 일지화학(7.6%), 현대위아(7.4%) 등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허국철기자 [illegible]

중국 관광객 몰리는 송도, 부동산 기지개 켤까

'별그대' 인기에 즉석 투자문의 이어져
촬영지 모인 1·3공구 중심 관심 고조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송도 부동산 시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투자이민제를 통해 중국 자본을 먼저 받기 시작한 제주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땅값 상승세를 보이는 등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관광공사 관광 R&D 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수는 104만67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이 중 63%인 66만6000여 명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가까운 송도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효과로 극중 촬영지인 인천대 송도캠퍼스, 송도 센트럴로, 송도 석산 등에 중화권 팬들이 몰리고 있다.

인천대 송도캠퍼스는 중국 4대 공중파 방송국의 하나인 상해미디어그룹(SMG) 산하 상해동방TV를 통해 중국 전역에 소개된 바 있어 중국인의 관심이 뜨겁다. 홍콩의 유력 여행 주간지 '유-매거진' 2월호에도 '별그대' 촬영지 관련 특집 기사가 실렸다.

송도는 중화권에서 인기 있는 런닝맨이 10회 이상 촬영되면서 중국 관광객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점도 있다. 게다가 전 세계 19억 명이 본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도 센트럴파크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촬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부터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 숫자가 크게 늘면서 송도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롯데마트 송도점과 이랜드 쇼핑몰 NC큐브 커낼워크에 외국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 10%대에 이른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센트럴파크 이미지

이에 최근에는 송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중국인도 등장하는 모습이다. 송도 내 중개업소들은 지난달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중국인들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도 S공인중개사무소는 "투자이민제 확대 시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인들의 실수요와 투자목적 문의가 가끔 온다"며 "국제업무지구로 조성되면서 센트럴파크를 끼고 있는 1·3공구 IBD 위주로 중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송도 내 미분양 주택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3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미분양 주택은 1939가구로 전월 대비 10%(215가구) 감소했다. 작년 12월과 비교해서 25%(543가구) 줄었다.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분양 중인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 관계자는 "별 그대 주인공들의 데이트 장소로 알려진 센트럴파크를 방문했다가 아파트에 대해 문의하는 중국인이 일주일에 1~2명 정도 꾸준히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이민제가 확정되지 않았고, 송도를 여전히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 본격적인 투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H부동산 관계자는 "외면에서 봐 익숙한 1·3공구 IBD 외 지역은 관심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침체됐던 부동산시장에 호재일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만 실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지는 지켜봐야 알지 않겠나"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pso7821@metroseoul.co.kr

문 연 외환은행 화폐전시관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 문을 연 화폐전시관. 사진은 터키 화폐인 리라. /연합뉴스

비 젖은 신발 '뽀송하게'

짠순이 주부 경제학

올 봄에는 유난히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잦았다.

비오는 날 축축하게 젖은 신발을 계속 신고 있으면 살이 무르고 물집이나 무좀이 생기기 쉽다. 이럴 땐 신발을 빨리 말리는 게 급선무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 말리면 가장 좋다. 그런 곳이 없다면 아쉬운 대로 포장지나 신문지를 이용하자. 신발 안쪽과 바닥에 신문지 몇 장을 끼워 두면 습기가 빠져나간다. 신문지를 수시로 갈아주면 빨리 말릴 수 있다.

신발 종류에 따라 말리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가죽구두는 가장 먼저 겉에 묻은 흙을 솔로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안쪽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신문지를 구겨서 구두 안에 꽉꽉 채워 넣어야 나중에 모양이 틀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엔 바람이 잘 부는 그늘에 비스듬히 세워서 말린다. 직사광선은 구두의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다. 급하다고 헤어드라이나 난방기기를 이용해서 말리는 것도 안된다.

스웨이드 또는 세무 구두 역시 관리가 중요하다. 스웨이드의 천적도 습기! 마른 수건으로 겉에 묻은 물기를 톡톡 털어내고 그늘에 말린다. 가죽구두와 마찬가지로 구두 안에 신문지를 채워 넣는다. 다 마른 후에는 부드러운 천이나 전용 클리너를 이용해 물기 때문에 생긴 얼룩을 제거한다. 악취를 없애려면 신발이 마른 후 레몬 한 조각이나 말린 녹차 티백을 넣는다.

러닝화는 젖은 채로 두면 모양이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빨리 말려야 한다.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말려야 하는데, 얇은 천 소재의 러닝화는 세탁도 가능하다. 전문세탁업체에 맡기거나 15~25도 미지근한 물에 연성세제를 넣어서 손으로 살살 세탁해줘도 괜찮다.

비오는 날에는 젖은 신발과 우산 등으로 현관이 지저분해진다. 신발장에 보관해둔 젖지 않은 신발도 자연히 눅눅해진다. 이 때는 벽돌을 3~4개 준비해 그 위에 우산과 신발을 올려놓으면 벽돌이 수분을 흡수해 습기 걱정을 덜 수 있다. 또 젖은 벽돌은 버리지 말고 햇빛에 잘 말려서 신발장 아래 칸에 두면 신발장 습기를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 /이신지기자 mi@

선진국, 순환 출자로 M&A 방어

유럽 6개국 지배구조 강화 수단… 법적규제도 없어

유럽의 선진국가들이 외국자본의 인수합병 위협을 막고, 자국기업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피라미드 출자와 상호출자 형태의 기업소유지배구조를 형성해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의 6개 선진국가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을 해당 국가의 문헌을 활용해 비교·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유럽 선진국가에서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자국 기업집단의 지배권 안정을 위해 방어적인 제도를 발전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이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의 위협에 직면하자 독일의 경우 은행과 상호출자관계와 피라미드 출자관계, 스웨덴은 다중의결권과 피라미드 출자구조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또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제 금융투자기관의 지분확대 압력에도 전통적인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신규 상장기업들과 다국적 기업의 상장으로 주식시장에서 소유분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업집단들은 기존의 피라미드 출자 체계나 다중의결권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럽 선진국가들이 자국의 주요 기업집단들 경영권을 안정화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과 산업지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유럽 선진국가의 경우 지주회사와 피라미드 출자, 상호출자와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지주회사체계와 피라미드 출자구조 형태의 기업집단체제가 형성되며, 법 제도적으로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피라미드 출자구조 형태가 허용되는 등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밖에 유럽선진국가의 국가별 사례를 살펴본 결과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출자구조와 순환출자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독일은 은행과 산업자본 간 상호출자관계와 피라미드 출자관계를 보였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기업 간 상호주식보유와 임원겸임을 특징으로 하는 특유의 그룹형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탁기자 kmd@metroseoul.co.kr

두산중공업, 베트남에 양궁 전수 두산중공업 양궁팀이 베트남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에게 '양궁 강국'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제공

전병헌 의원, 홈쇼핑 甲乙 개선 '총대'

납품비리 근절 법안 발의… 영업정지·승인취소 등 담아

만연된 홈쇼핑 채널의 납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홈쇼핑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홈쇼핑 채널사업은 6개 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채널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다. 2013년 기준으로 판매액 14조원, 매출 4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2년간 판매액 30%, 매출액 32%가 성장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방송편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해 기소되는 등 대부분의 홈쇼핑 채널에서 납품비리가 만연한 실정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따라 홈쇼핑 채널 사업자의 경우, 5년마다 재승인만 받으면 상품판매를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중소업체 등에 대해 납품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각적인 승인취소, 영업정지, 승인기간 단축 등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전 의원은 "홈쇼핑 채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특정업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사업자의 특권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준 미래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이통사 20일 영업 재개… 활기 되찾을까

출고가 인하·유통망 정비 등 고객유치 치열 예상

이동통신 3사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재개에 나선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영업정지 일정이 총 68일만에 모두 마무리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통신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단독 영업중인 KT를 비롯, 영업재개를 앞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서비스로 가입자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단독 영업중인 KT는 영업조직을 재정비하고 출고가 인하를 통해 고객 유치에 꾸준히 나설 방침이다. 영업정지 기간 무너졌던 시장점유율 30%도 단독 영업기간 가입자 급증에 성공하며 어느 회복됐다.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 부사장은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말 기존 236개던 지사를 79개로 광역화하고 하부 조직으로 181개 지점을 신설하는 등 현장을 '확 큰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며 "제조사와의 협의를 토해 출고가 인하를 실천하는 등 유통채널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신뢰도 회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역시 20일 영업재개를 앞두고 대리점 등 유통망 구조와 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등 '유통혁신' 활동을 통해 영업재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SK텔레콤이 내세운 유통혁신 프로그램은 ▲구매망 경쟁력 강화 ▲대리점 쇄신 관리 ▲차별적 고객 서비스 제공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또한 유통망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17일부터 시행하는 등 고객 신뢰도 회복에 나선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지속적인 이동통신 경쟁 환경을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 1위 이동사로서 건강하고 경쟁력있는 유통망을 구축,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영업재개를 앞두고 유통망 혁신을 통해 이동통신 경쟁 환경을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LG유플러스도 유·무선 결합상품인 '한방에yo' 등 앞세워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며 고객 서비스 강화를 통한 가입자 유지에 나서는 한편,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한편 업계에선 이통3사가 모두 영업을 재개하는 20일부터 시장상황이 또다시 과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가입자 이탈로 시장점유율 50%가 무너진 SK텔레콤을 비롯, 이통3사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대거 투입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영업재개를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눈치싸움에 들어간 것 같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 이전까지 치열한 보조금 대란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KT-서울대, 유전체 사업 '맞손'

KT와 서울대학교가 유전체 분석 기술 공동 연구개발에 나선다.

KT와 서울대는 유전체 분석 기술 분야 산학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7월까지 공동설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유전체 분석을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제공한다.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은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 연구 공간과 전문 연구인력을 제공해 유전체 분석 핵심솔루션 개발, 유전체 관련 사업발굴을 본격 추진한다.

KT와 서울대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미국 브로드연구소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해 학문적 선도는 물론 기술기반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 창조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서울대 바이오기술(BT)과의 융합으로 우리나라의 유전체 분석과 응용 실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가 14일을 기해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 알뜰폰 10만 돌파

저렴한 기본료 최대 장점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알뜰폰이 14일 기준 가입자 10만291명을 기록하며 판매 7개월 14일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주요 226개 우체국에서 지난해 9월 27일부터 판매에 나선 우체국 알뜰폰은 첫날 666건을 시작으로 통신비 절감을 희망한 고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올해는 일평균 729건으로, 전년 일평균(597건)에 비해 22.1%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위해 판매를 시작한 우체국 알뜰폰은 알뜰폰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여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체국 알뜰폰은 서비스 품질을 알 수 있는 가입자 해지율이 월 0.4%에 그쳐 이동통신사 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9.2%며, 60대 가입자가 21.7%로 가장 많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다양한 단말기 라인업과 요금제 상품이 보완되면서 30~40대 가입률도 연초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렴한 기본요금에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요금제가 59.9%, 피처폰 판매가 46.3%를 차지하는 것도 기존 이통사와 다른 우체국 알뜰폰만의 특징이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우체국에서 '내게 맞는 요금제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읍면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없음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종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식장이 크죠."

정선희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씩씩한 며느리, 예쁜 손주 돈 건 구두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현우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면뭄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이무렵의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한 맘에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기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나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과학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이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필요없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남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바랄어요.

☎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구글부사장, 밴드게임 출시일 맞춰 내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빠른 성장세 주목
인프라·수익모델·투자성과 뛰어나 관심

#1 지난 12일 구글 본사의 고위 임원이 방한했다. 구글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책임지고 있는 제이미 로젠버그 부사장이다.

그는 이날 구글플레이 미디어 행사를 열고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삼성·LG전자가 만든 훌륭한 모바일 기기로 뛰어난 디지털 경험을 하는 나라다. 모바일 기술혁신의 방향성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젠버그 부사장은 구글플레이에서 인기가 높은 몇몇 국산 앱을 일일이 거론하며 한국 개발자들이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2 같은 날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는 게임 플랫폼을 오픈하고 디즈니 인기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를 소재로 한 모바일게임 '퍼즐푸'를 비롯해 위메이드의 '하트스피어', 아프리카TV의 '역전! 맞짱탁구' 등 모바일게임 10종을 선보였다.

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캠프모바일은 카카오톡·라인에 비해 게임 개발사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입점 심사를 없앤 게 특징이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벌써 과열 우려가 나올 정도로 경쟁이 뜨겁다.

구글플레이와 같은 터줏대감 격의 앱장터는 물론 라인, 밴드, 아프리카TV 등 신흥 게임플랫폼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SK플래닛, KT와 같은 통신사들도 자체 앱스토어를 열어 모바일게임 판매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제이미 로젠버그 구글 부사장이 구글플레이 미디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구글 제공

그렇다면 구글이나 SNS 브랜드, 이통사들이 앞다퉈 모바일게임을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 앱 장터에서 게임 앱은 판매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매출의 21%~30%를 가져갈 수 있어 마진이 크다.

국내 1위 모바일게임사 CJ E&M의 실적은 이들 기업이 모바일게임 판매에 집착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준다.

CJ E&M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7억원(9%) 성장한 4026억원, 영업이익은 72억원(171%) 성장한 115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게임사업부문은 '다함께 던전왕', 세븐나이츠, 사이닝스토리 등 신규 출시된 모바일 게임의 인기와 지난해 선보인 몬스터 길들이기, 모두의마블 등의 안정적인 흥행이 전체 성장을 견인, 전년보다 매출이 38% 성장한 1286억원을 마크했다.

모바일게임 '아이러브커피', '아이러브파스타'로 유명한 파티게임즈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증시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3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아이러브커피'는 2012년 8월 서비스 이후 2년 가까이 게임을 서비스하며 게임 개발력과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후속작 '아이러브파스타'도 사전 예약자 16만명을 유지, 구글 플레이 인기 무료 1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안기를 얻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모바일게임 데이터 차감 걱정 '그만'

NHN엔터-SKT 전략적 제휴 협약

NHN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 SK텔레콤과 손잡았다.

NHN엔터테인먼트가 신작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 SK텔레콤은 고객들이 데이터 요금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두 회사는 15일 NHN엔터테인먼트 본사 판교 플레이뮤지엄에서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과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게임 플랫폼 활성화 전략적 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제휴로 SK텔레콤이 보유한 선도적인 이동통신 기술, 마케팅 노하우와 NHN엔터테인먼트의 우수한 게임 콘텐츠 개발 역량 결합하게 됐다.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 게임개발사를 위한 상생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지만다.

먼저 모바일 게임 이용 패턴 분석을 적용한 사용자 특성별 맞춤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마케팅 협력 시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NHN엔터테인먼트가 준비중인 신규 모바일 게임 플랫폼 관련 공동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다.

또 양사는 다양한 게임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개발사들이 좋은 콘텐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우진 대표는 "자사의 모바일 게임은 물론 현재 준비중인 모바일 게임 플랫폼과 관련해 실력있는 게임사들의 좋은 콘텐츠가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손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과 지원책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왼쪽)과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대표가 모바일 게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15일 오전 11시 NHN엔터테인먼트 판교 본사에서 체결했다. /NHN엔터 제공

월드컵 4강 감동 또다시…

피파온라인3 '전설2002' 눈길

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동을 게임으로 맛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넥슨이 2002년 국가 대표 축구팀 에이스 20명을 추가하는 '2002년 전설의 선수' 업데이트를 최근 실시한 덕분이다.

브라질 월드컵 '태극호' 선장을 맡은 홍명보를 비롯해 '테리우스' 안정환, 故 유상철 등 전설의 전성기 모습을 '피파온라인3'에서 만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fifaonline3.com)에 마련된 2002 전설의 선수 상세안내 페이지에 들어가면 게임에 적용된 20인의 3D 이미지와 2002년 당시 활약상이 반영된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넥슨이 '전설2002' 선수 업데이트를 기념해 성인남녀 1000명(20~4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2.6%가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 이상의 성적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리서치전문업체 오픈서베이와 공동으로 조사한 이번 조사에서 최종 예상성적으로 16강 57.5%, 8강 19.3%, 4강 4% 순으로 나타났다. 조별 예선탈락을 예상한 답변은 17.4%에 불과했다.

태극호 첫 골의 주인공을 예측하는 질문에는 최근 분데스리가 시즌 최종전에서 10호골을 터트리며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이 50.5%를 지지했다. 기성용(18.2%), 구자철(14%), 이청용(13%)이 뒤를 이었다.

/서극원기자 km@

'길드워2' 중국서비스 시작

엔씨소프트의 글로벌 기대작 '길드워2'(중국명 激战2)가 15일 중국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에서 지난해 5월부터 3차례 비공개테스트(CBT)를 진행했고 이달 초 사전구매자를 대상으로 정식서비스 버전에 대한 선행 플레이를 실시했다. 이번 정식서비스는 총 33대의 서버로 진행된다.

길드워2의 중국 판매와 서비스는 현지 파트너사인 콩종이 맡는다. 이용자는 최초에 게임을 구매(패키지 또는 디지털 다운로드)한 후 별도의 월 이용료 없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구미모바일 '퍼즐버블' 100만 다운로드

글로벌 모바일게임사 구미의 '퍼즐버블 for Kakao'가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 2일 출시된 '퍼즐버블'은 100만 다운로드 돌파와 함께 구글 플레이 인기무료게임 2위, 앱스토어 인기무료게임 1위를 각각 달성했으며 하루 게임 접속자 수(DAU) 25만명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명작 오락실 게임의 귀환으로 출시와 함께 화제를 얻고 있는 '퍼즐버블'은 원작의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퍼즐게임으로 재탄생돼 게이머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100만 다운로드 달성을 기념한 이벤트도 18일까지 진행된다. 게임에 접속만 해도 루비10개, 하트10개 그리고 1만 코인을 지급한다.

관절 및 인대 질환·신경통증·디스크 질환 등 만성 통증 진화된 신개념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도수 치료로 끝!!

유명 여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평소 우측 팔꿈치 외측 통증(테니스 엘보우)과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 체외 충격파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자꾸 재발해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 수술이 두려운 S씨는 결국 비수술적인 치료를 위해 S양과 같은 방송에 출연중인 가수 K씨와 방송인 G씨의 소개를 받아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이승주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은 우측 주관절 외측 건초염과 척골 신경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과 인대 염좌로 S씨의 상태를 진단했다. 이후 S씨는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강남조이스병원에서 주로 치료받았던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로 치료받았으며 부종 감소와 염증 치료를 위한 특수 인대 치료 주사도 맞았다. 치료 후 S씨의 상태는 호전됐다.

이처럼 4년 전부터 강남조이스병원에서 시행됐던 유전자 줄기세포 인대 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과 스테로이드 주사와 다른 치료법이다. 일반적인 인대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 질환, 신경통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또 강남조이스병원의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자가혈 줄기세포 인대 증식 주사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S씨는 완벽한 재활을 위해 도수운동재활치료센터에서 핵심치료를 받았다. 강남조이스병원의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레이저 초음파 치료, 인대·근육 강화 운동 치료를 주 2회씩 2개월 받았다. 현재 S씨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승주(오른쪽)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과 가수 K씨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환자를 위한 합리적인 치료 실시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고 있다. 관절 및 인대 질환은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허리 또는 목 디스크 질환일 경우 신경 주사 치료를 한다.

특히 강남조이스병원은 재발 방지와 질환의 근본 치료를 위해 환자의 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또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와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치료를 선진체계화했다. 더욱이 강남조이스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하는 도수치료와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디스크나 관절질환으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하는 운동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본원 외에 여의도역, 교대역, 홍대입구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치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3차원 생역학 디스크·관절치료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 재생센터를 설립해 합리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이른 더위, 진드기·모기 조심하세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이에 따라 들밭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도 빨라졌으며 진드기나 모기 등의 출현과 활동 시기도 덩달아 앞당겨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진드기나 모기 등을 매개로 하는 감염 질환에 조심해야 할 시기다.

◆예방 수칙 지키는 것이 최선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부산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를 확인해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빨간집모기가 원인이다. 고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중추 신경계 이상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다.

또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의한 쯔쯔가무시병도 주의해야 한다. 숲이나 들쥐 등의 설치류에서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면 균이 인체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해 발열, 발진,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증상이 비슷한 감기로 오인해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야외활동 후 갑작스런 고열이 생긴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

'살인진드기'로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가 유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있다. 봄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지난해에는 17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할 만큼 무섭다.

이런 진드기·모기 매개 질환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모기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 실내에서는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김종명 청심국제병원 내과과장은 "모기나 진드기가 많은 풀숲 위에서 옷을 벗거나 눕지 않아야 하며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옷을 세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y@metroseoul.co.kr

LG생명과학, '닥터핏 다이어트' 모집

31일까지 리튠 온라인몰에서 체험단 신청

LG생명과학이 오는 31일까지 '닥터핏 다이어트 체험단'을 모집한다.

체험단은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맞춤형 다이어트 제품인 '닥터핏 다이어트' 출시를 기념해 마련됐다.

참여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리튠'의 공식 온라인몰 체험단 모집 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체험단은 LG생명과학이 제안한 식단과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맞춰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

닥터핏 다이어트는 식사 전 섭취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닥터핏 다이어트 비포밀'과 식사 후 섭취해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닥터핏 다이어트 애프터밀'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황재용기자

대학병원 다양한 건강강좌 개최

대학병원들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건강강좌를 마련했다.

먼저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16일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에서 '자기 발목관절을 살리는 발목관절염 수술법'을 주제로 한 강좌를 개최한다. 이우천 족부센터 교수가 강의를 맡았으며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전문의와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서울대병원은 17일 병원 B강당에서 '다발성 경화증 및 시신경척수염'이라는 주제의 건강강좌를 준비했다. 강좌에서는 다발성 경화증 및 시신경척수염의 진단과 치료, 재활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서울시 서남병원은 21일 병원 어울홀에서 혈관과 관련된 건강강좌를 연다. 강좌 주제는 '건강한 혈관을 위한 동맥경화증의 이해'다. 병원은 강의 후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동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꼬지마루, 예비창업자들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내놔 '관심'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많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드는 투자비용에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은 투자비용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소자본창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금마저 넉넉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식 수작 프리미엄 꼬치구이 전문점 꼬지마루(www.cozymaru.com)는 소자본 예비창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관심을 끈다.

이번 특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총 3가지로 ▲점포 개설 시 발생되는 교육비 200만원 지원 ▲인테리어 비용 3.3㎡당 10만원 할인 ▲최대 2000만원 무이자 대출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전사적인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꼬지마루는 본사 자체 물류시스템을 통해 낮은 단가에 물류를 공급받고 있어 같은 매출이라도 수익률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꼬지마루의 슈퍼바이저가 가맹점을 방문해 영업현황 등을 분석해 주고 있다. /꼬지마루 제공

삼겹살, 소갈비살, 쭈꾸미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재료에 매콤한 고추장소스와 마늘소스를 더해 도자기 그릇에 내놓기 때문에 한국식 꼬지구이 주점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여기에 구운 양파와 마늘, 명송이를 곁들여 건강을 함께 고려했다. 주류 역시 생맥주를 비롯해 사케, 와인, 막걸리 등 다양하게 구비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한국식 수작 프리미엄 꼬지구이전문점 꼬지마루의 창업관련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페이지(www.cozymaru.com)를 참고하거나 무료전화(080-719-5252)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일기자

매일유업, 농업 비즈니스 시작

전북 고창서 부가가치 창출

매일유업(대표 김정완)이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지역사회(전북 고창군)와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조성에 나선다.

정부와 매일유업은 최근에 전북 고창 상하농원 유성목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동반성장위원회 김종국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동반성장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매일유업은 2016년까지 전북 고창지역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인구의 신규 유입 효과 ▲4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로 고용 창출 ▲지역 농축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매일유업은 지역 농축산물 구매를 2013년까지 23만5267t으로 늘릴 예정이다.

매일유업은 농업 농촌의 6차산업화 모델인 '상하농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밀접 기업이 서로 협력해 농업의 가치창출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정립키로 했다.

기존 매일유업의 유제품 공장이 있는 전북 고창 상하면에 3만평 규모로 지어지는 상하농원을 중심으로 고창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을 겸비해 신규 관광인구 유입에도 일조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농식품부 등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동반성장 협약식을 체결했다. /매일유업 제공

또 매일유업은 농식품 해외수출을 2013년 6386t에서 2018년까지 5만6316t으로 782% 확대한다.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실현과 국산 농축산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연 그대로의 순환 방식인 상하목장 오가닉 서클 운영을 확산하고 2013년까지 유기 농축산물 제품의 매출을 2.5배 확대하는 등 유기 농 축산물 시장의 성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매일유업 김정완 회장은 "상하농원이 정부·기업·민간단체·농가가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국 농업 성장의 기본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일기자

개성 가득 도시락으로 즐기세요

제철 나물 한식부터 프리미엄 삼각김밥까지 다양

기온이 올라가면서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 외식업계에선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도시락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나들이용 음식과 달리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맛과 영양·실속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락들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식 도시락 브랜드 '본도시락'은 제철 나물이 듬뿍 들어간 '이런 냉이된장 도시락'과 '고추장먹고 불맛도시락'을 최근 출시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함께 톡톡 튀는 이름을 선보인 이번 신메뉴에는 냉이가 들어간 비빔된장과 향긋한 취나물을 넣어 테이크아웃 도시락에 익숙한 젊은 층뿐만 아니라 40~50대에게도 인기다.

수제 삼각김밥 브랜드 '오니기리와이규동'은 '소풍도시락' 1종, '추억도시락' 3종, '가지이엔도시락' 6종 등 총 10종의 신메뉴를 내놓았다. 일본식 주먹밥을 뜻하는 오니기리에 다채로운 재료를 넣어 맛과 편의성을 모두 잡았다. 2종의 오니기리와 샐러드 볼을 포장용기에 담아 제공하는 소풍도시락 '삼각김밥 샐러드팩'은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갈 때 먹기 좋다. 추억도시락은 6가지의 오니기리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오니기리비빔밥'과 김치·제육볶음밥 도시락 등으로 구성됐다.

CJ푸드빌 '빕스'는 '커플·피크닉·프렌즈 세트'로 봄나들이 고객잡기에 나섰다. 커플세트는 피자나 치킨 중 선택한 2개 메뉴에 콜라 2캔이 무료로 제공되며, 피크닉세트는 피자나 치킨 중 3개를 고르면 콜라 3캔이 증정된다.

패밀리레스토랑 마켓오는 '비프·치킨 데리야끼 런치박스'와 5단 도시락인 '피크닉 콤보 박스'가 인기다. 피크닉 콤보 박스는 오곡찰밥과 라이트 스모키 드레싱의 쉬림프, 치킨 데리야끼, 그릴 야채로 푸짐하게 구성돼 있어 야외에서도 한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정영일기자 jmail@metroseoul.co.kr

초콜릿 활용한 달콤·건강 레시피

달콤한 유혹의 대명사, 바로 초콜릿이다. 초콜릿은 테오브로민이라는 쾌락 완화,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있다. 초콜릿을 색다르게 활용한 베이킹 레시피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레이즌가나슈초코타르트

- 분량: 1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300㎉ / 조리시간: 60분
- [재료] 밀가루(박력분·생크림) 100g, 버터 60g, 아몬드가루·슈가파우더 20g, 설탕 10g, 계란노른자 1개, 소금 약간, 다크초콜릿 150g, 물엿 15g, 버터 30g, 나파쥬, 건포도·피스타치오 약간

1. 버터·설탕·슈가파우더·노른자를 차례대로 넣어 섞는다.
2. ①에 박력분과 아몬드가루, 소금 약간을 체쳐 넣고 섞는다.
3. 반죽이 하나로 뭉쳐지면 비닐에 넣어 평평하게 펴준 다음 냉장고에 넣어 1시간 정도 충분히 휴지시킨다.
4. 덧가루용 강력분을 뿌린 후 ③을 밀대로 3㎜ 정도 두께로 고르게 민다.
5. 반죽을 타르트 틀에 얹어 밀착시킨다. 반죽 윗면은 공기구멍을 포크로 적당히 찌른다.
6. 반죽을 160~170℃로 예열해 둔 오븐에 넣어 20분 정도 굽는다.
7. 구운 타르트지는 꺼내어 틀에로 식힌 뒤 가나슈를 만든다. (생크림, 물엿, 다크초콜릿, 버터 순으로 넣고 섞어줌)
8. 식혀둔 타르트지 위에 나빠쥬를 붓으로 살짝 바른 후 ⑦의 가나슈를 부어 채운다.
9. 냉장고에 넣어 굳히고 마지막으로 건포도와 피스타치오를 적당히 올려 마무리 한다.

◆초코크리스피

-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243㎉ / 조리시간: 30분
- [재료] 시리얼 120g, 초콜릿 150g, 땅콩 50g, 꿀 3큰술

1. 초콜릿은 잘게 다져서 그릇에 담아 중탕해 녹인다.
2. 땅콩은 껍질을 벗겨 비닐 주머니에 넣고 망치나 밀대로 잘게 부순다.
3. 큰 볼에 시리얼, 땅콩·꿀을 넣고 초콜릿 녹인 것을 넣어 섞는다.
4. 랩을 깐 용기 혹은 모양 틀에 ③을 쏟아 붓는다.
5. 냉장고에 넣어서 30분쯤 굳힌 뒤 꺼내서 모양을 정돈한다.

◆바나나초코카스테라롤

-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357㎉ / 조리시간: 30분
- [재료] 바나나 1개, 초콜릿 50g, 카스텔라 120g, 생크림 3큰술, 럼주 1/2작은술

1. 초콜릿을 잘게 다져 생크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녹인다.
2. 카스텔라는 굵은 체에 내려 가루로 만든다.
3. 녹인 초콜릿에 카스텔라가루와 럼주를 넣어 잘 섞는다.
4. 바닥에 김발을 깔고 그 위에 랩을 깐 후 ③을 평평하게 편다.
5. ④에 바나나를 올리고 김밥 말듯이 만다.
6. 냉장고에 1~2시간 정도 두어 굳힌 후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아웃도어업계 '극한 체험' 눈길

사막 횡단부터 알래스카까지 다양한 도전 홍보

아웃도어 업계의 극한 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 산악인을 영입하고 일반인을 모집하는 등 그 대상도 넓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등반이 아닌 독특한 도전, 의미 있는 테마로 체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독특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코오롱스포츠는 최근 코오롱스포츠 챌린지팀의 남영호(37)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가 사막과 사막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주 그레이트 샌디 사막과 깁슨 사막을 무동력으로 횡단했다고 전했다.

원정대는 지난달 20일 호주 앨리스 스프링스를 출발해 이달 11일 서부 해안 80마일 비치에 도착함으로써 1680㎞에 걸친 사막 횡단에 성공했다. 팻바이크를 이용한 무동력 무지원 횡단으로 회사는 이번 도전이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횡단을 마친 남 대장은 "무동력으로 탐험하기에는 그리 만만한 지역이 아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들이 함께 팀을 이뤄 도전하는 것도 색다른 모험이었다"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해 함께 이뤄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스포츠는 2013년 남영호 대장을 챌린지팀으로 영입해 등산과 스포츠클라이밍에 치중했던 도전 원정대 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대표 박창근)는 2014 네파 익스트림팀 매킨리 원정대가 지난 13일 북미 최고봉인 알래스카 매킨리 산(Mt. McKinley·6194m) 등반을 목표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전은 최소한의 인원과 장비 식량만으로 등반하는 고전적인 방식인 '알파인 스타일(Alpine Style)'로 진행된다.

알파인 스타일은 셰르파의 도움 없이 최소한의 도구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이 적고 흔적도 남기지 않아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이상적인 등반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연 생태 보호 옹호론자'라는 브랜드 의미를 담고 있는 네파는 이번 등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원정대는 해발 2200m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해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5300m까지 베이스캠프를 확대해 고소 적응을 마친 후 5월 말 데날리패스(Denali Pass) 사면을 따라 매킨리 정상을 밟을 예정이다.

패션그룹 세정의 트레킹 전문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은 지난 달 25일 2014 센터폴 몽블랑 원정대 발대식을 가졌다. 회사는 스위스 트레킹 문화를 반영한 브랜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원정대를 구성했다.

왼쪽부터 코오롱스포츠 챌린지팀 남영호 대장, 라이언 코프(호주), 제이슨 리처드 스미스(미국) /코오롱FnC 제공

원정대는 이동본 대장을 필두로 한 등반 지원팀과 일반인 신청자 중 6명을 선발해 총 13명의 대원으로 이뤄졌다. 일반인 대원에는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등 평범한 사람들이 포함됐다.

첫 해외원정에 나선 원정대는 4월부터 약 3개월간 사전 훈련을 하고 오는 6월 23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몽블랑 정상에 도전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체리쉬 테이트 카우치 소파 와 드롱기 아이코나 빈티지 콜렉션

청량감 품은 '리프레쉬' 인테리어 주목

체리쉬 '테이트 카우치 소파 라이트 그레이' 드롱기 '아이코나 빈티지 콜렉션' 등 인기

활동적인 캠핑부터 정적인 명상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의 '힐링'을 얻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어딘가로 '떠나는 힐링' 대신 인테리어 변화나 향초 및 방향제 사용 같이 '머무는 힐링'을 통해 손쉽게 기분을 전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토탈 리빙 디자인 기업 체리쉬(대표 유경호, www.cherish.com)와 이탈리아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드롱기(www.delonghi.com/ko-kr)는 이른 더위에 높아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힐링을 위한 리프레쉬 인테리어를 제안한다.

부피가 큰 가구를 화이트&사계이스로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낼 수 있고 어떤 포인트 컬러와도 잘 어울릴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체리쉬의 '테이트(Tate) 카우치 소파 라이트 그레이'는 등과 척추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쿠션감이 뛰어나 지친 신체에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쿠션·러그 등의 소품은 청량감 있는 블루톤으로 코디해 프레쉬한 무드를 연출해 보자. 이때 한 가지 블루 컬러보다는 같은 블루 계열 중 채도가 다른 여러 색상을 함께 매치하는 것이 더욱 풍부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다. 체리쉬의 '트위스트(Twist) 쿠션'은 고리 형태의 입체감 있는 디자인이 공간에 재미와 개성을 더하기에 안성맞춤인 제품이다.

감각적인 인테리어 소형가전 하나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드롱기 '아이코나 빈티지 콜렉션'은 지중해의 빈티지한 색감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러들에게 인기가 높다. 에스프레소 커피메이커, 토스터가 주전자로 구성돼 있다. 스카이블루·올리브그린·파스텔크림·벚꽃빛 등 다양한 빈티지 컬러를 선보여 감각적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손색이 없는 제품이다. /정영일기자

학생들이 원하는 선생님은?

1위 인피니트 '호야', 2위 국민MC '유재석'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유머러스한 스포츠맨 유형의 선생님을 바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리트베이직의 학생복 브랜드 엘리트(대표 최병오·홍종순)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의 진솔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전국 중·고등학생 24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원하는 선생님 1위에는 운동 신경이 뛰어나 멋진 스포츠맨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호야(41.4%)'가, 2위에는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수업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해줄 것 같은 국민MC '유재석(23.6%)'이 이름을 올렸다.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 학생 95%는 '있다'고 답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로는 ▲엄하게 지도하시지만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24.7%) ▲재미있는 농담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22.7%)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이해해주셔서(22.2%) 등이 꼽혔다. 기타 의견으로 '학교 폭력과 도난 사건을 막아 주셔서'라는 의견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여전히 스승의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선물을 줄 의향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87%의 학생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스승의 날 선물로 손 편지나 카드(58.9%)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수업 시간 외에도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35.4%)'가 1위를, '인생에 대해서도 멘토가 되어주세요(26.2%)'가 2위를 차지해 10명 중 6명이 선생님과 공적인 사제 관계에서 벗어나 성적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등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다.

/김학철기자

◆학생들이 바라는 스타 선생님은?

유니클로 감사제 '에어리즘'으로 히트텍 대란 잇기

SPA 브랜드 유니클로가 지난 겨울 큰 할인 폭으로 히트텍 대란을 몰고 왔던 감사제를 이번엔 에어리즘으로 선보인다.

유니클로는 15일부터 19일까지 고객 감사 특별 행사인 'Thanks Sale'을 열어 다양한 제품을 대폭 할인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행사에서 에어리즘 티셔츠와 캐미솔을 9900원에 내놓는다. 남성 드라이 피케 폴로 셔츠는 반값 할인되고 반바지는 기존 가격에서 1만원, 여성 지노 마이크로 쇼츠는 5000원을 싸게 판다. /김학철기자

뷰티업계, 성년의 날 이벤트 풍성

할인 판매·선물 증정·포장 서비스 등 다양

성년의 날을 맞아 뷰티업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에스쁘아(사진)에서는 오는 21일까지 면세점을 제외한 에스쁘아 전국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인 립스틱 '노웨어' 전 품목을 20% 할인해 판매한다. 특히 올해 초 출시돼 '마다의 립스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웨어 M'과 '노웨어 S'가 세일 품목에 새로로 포함됐다.

스킨푸드(?)는 오는 27일까지 향수와 에이크업 제품 세품들을 할인 판매하는 '뷰티 버켓 리스트 기획전'을 실시한다. 특히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중 3명을 추첨해 특별한 성년의 날의 추억을 남겨줄 봄데이 스튜디오의 커플 사진 촬영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알뜰에서는 19일까지 1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보티브캔들과 키홀더를 함께 증정하는 이벤트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 진행한다. 또 랑콤은 5월 한 달간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선물 포장과 은은한 향이 입혀진 커브릭 로즈를 제공한다.

이 외에 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에서도 성년의 날 특별 선물 이벤트가 열린다. 타임스퀘어에 입점한 미샤와 토니모리 매장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통해 미샤는 19일 성년의 날 하루 동안 립 제품과 로드미샤 제품을 1+1으로 판매하며 토니모리는 오는 18일까지 세트제품과 향수를 최대 50% 할인한다.

/장혜진 기자

성년의 날 선물하기 좋은 향수는?

자신만의 향·스타일 맞게

19일은 성년의 날이다. 향수는 가장 전통적인 성년의 날 선물 아이템으로 성인이 된 스무살 새내기들에게 자신만의 향기와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센스를 키워줄 수 있다. 성년의 날 선물하기 좋은 향수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들을 주목해보자.

◆여성에겐 플로럴 향수를

최근 출시된 플로럴 우디 계열의 불가리 옴니아 인디안 가넷은 오렌지 컬러의 보석 만다린 가넷과 중독성 있는 인디언 튜베로즈의 하모니로 탄생한 여성 향수다. 활기차고 정제된 느낌의 만다린과 사프론의 탑노트를 시작으로 인디안 튜베로즈와 오스만투스의 미들노트가 우아한 여성스러움을 더하고 섬세한 인디안 엠버 향이 은은하게 남아 활기차고 즐거운 에너지를 선사한다.

클리타 렘피카의 신제품 '엘렌 오 드 뚜왈렛'은 사랑에 빠진 여인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프레쉬하고 라이트한 향으로 표현했다. 톡 쏘는 레드 커런트의 상쾌하고 강렬한 향기로 시작해 그윽한 와일드 로즈 새깨 속의 은은한 자스민 플라워가 향긋한 느낌을 주며 순수하면서도 센슈얼한 머스크와 화이트 우드 향으로 마무리된다.

달콤하고 상쾌한 향이 특징인 랑콤 '미라클' 향수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사랑받는 랑콤의 베스트셀러 향수다. 상큼한 프리지아 꽃과 달콤한 리치, 따뜻한 머스크 향이 20대 여성의 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우아한 남성미 더할 향수

에르메스 '떼르 더르메스'는 땅 끝의 근원인 땅과 흙을 테마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향 우디 노트와 광물·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해 에르메스가 표현하는 남성미를 상징한다. 탑 노트에서 느껴지는 소진의 향으로 시작해 삼나무 세달 우디 노트와 깊은 숲 속의 뿌리 냄새로 이어지는 향에서 기품과 센슈얼함, 순수함과 세련된 등을 느낄 수 있다.

불가리 뿌르옴므 익스트림은 다즐링티를 기본 콘셉트로 남성의 피부와 향기의 완벽한 조화를 시도하며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즐링티에서 추출한 에센스와 박하·오렌지꽃·생강 향·후추향이 함께 어우러져 신선하면서도 기품 있는 향을 구성하고 있으며 미들노트의 드라이 스파이시는 심플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베이스노트의 무스크향은 관능을 표현한다.

또 남성 브랜드 에르메네질도 제냐 '우오모'는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운명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야심찬 남성을 위한 향수다. 유쾌함과 열정을 더해주는 시트러스 향인 제냐 베르가못과 우디 계열의 베티버 향이 들어 있어 우아한 느낌을 주고 남성적인 매력을 담은 시더우드 향이 매혹적인 온기를 전해준다.

/장혜진 기자 hjjung0404@metroseoul.co.kr

위니아만도, '위니아 제습기 제로' TV 광고 공개

위니아만도(대표 박성관)가 '뽀송뽀송 위니아 제습기 제로' TV 광고와 CM송을 공개하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나섰다.

광고는 여름 장마철마다 눅눅하게 지내던 가족이 김유정이 선사하는 위니아 제습기를 만난 후 뽀송뽀송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위니아 모델인 아역배우 김유정과 함께 박준면·송영자·서권순·이준혁·하용근이 재미있는 연기를 보였다.

위니아만도는 특히 '빠르고 강력한 제습 이라는 제품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재밌는 가사와 흥겨운 리듬을 담은 '위 CM송 '위니아 습습 song'을 광고에 담았다. CM송은 작곡가 겸 가수인 주영훈이 제작했고 후렴부 노래는 광고모델 김유정이 직접 불렀다.

/장혜진 기자

'중소기업명품마루' 1년

중소기업명품마루 오픈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최근 코레일 서울본부 대합실에서 열렸다.

중소기업명품마루는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에 동참하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코레일과 IBK기업은행이 주관하고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이 자리에는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와 박찬환 코레일 서울본부장, 김원규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본부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행사 후 중소기업명품마루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명품마루는 현재 서울역점과 대전역점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여름 원피스·샌들 할인 판매 AK플라자는 오는 21일까지 전점에서 '서머패션위크(SUMMER FASHION WEEK)'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원피스와 샌들 등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AK플라자 제공

스무살을 위한 청순메이크업 연출하세요

피부 톤·분위기에 따라 핑크·오렌지 선택을

만 20살이 된 이들에게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 어떤 스타일링으로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생기발랄하면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메이크업을 추천한다.

스무살은 보송보송한 피부가 단연 큰 매력이다.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살려 자연스러우면서 생기 있는 피부 표현이 중요하다. 피부 톤을 한 층 더 밝게 해주면서 촉촉한 피부 결을 표현하는 베이스 제품을 사용해 화사한 피부 톤을 더해주고 컨실러를 사용해 다크서클 잡티 정도만 살짝 가려 광채 피부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하얀 사람은 연한 핑크 컬러를 사용해 피부 톤을 강조하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은 밝고 비비드한 핑크 컬러의 립스틱을 고르는 것이 좋다. 피부 톤과 상관없이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오렌지 컬러는 눈·뺨·입술 등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원 포인트로 활용해도 세련된 느낌을 살려준다.

/장혜진 기자

"배우 냄새 난다는 말 듣고 싶어요"

인간중독 으로 19금 멜로에 도전한

송승헌

최근의 송승헌(38)은 대중이 지금껏 알고 있던 모습과 많이 다르다. 14일 개봉한 '인간중독'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파격적인 '19금' 멜로 연기에 도전했고, 10여 년 만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솔직한 입담을 보였다. 영화 개봉 직후 만난 송승헌은 "이제서야 내 스스로 가둬 놓은 울타리를 넘은 느낌"이라며 한결 후련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 청춘스타에서 진짜 배우로

'인간중독'은 1969년 베트남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시기에 엘리트 군인 김진평(송승헌)이 부하의 아내 종가흔(임지연)과 가슴 아픈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음란서생' '방자전'의 김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송승헌은 이 영화에서 베트남전의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찾아온 첫 사랑때문에 파멸로 치닫는 쉽지 않은 배역을 소화했다. 20세에 데뷔해 줄곧 반듯한 이미지만 맡아오다 이번에는 노출과 베드신 등 수위 높은 장면을 연기했다.

"어릴 적에 선배들이 말하던 '배우가 돼야지'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후 오래도록 연기하면서 멋지게 늙는 배우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죠. '인간중독'은 그 시작이 되는 작품이에요. 관객에게 '송승헌에게 배우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송승헌은 "20대에는 연기를 즐기지 못하고 일로만 생각했다. 배우를 평생할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청춘스타의 이미지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서야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송승헌은 울타리를 넘고 나니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중독'에 출연하면서 악역 등 기존에 들어오지 않은 다양한 배역들을 제안받기 시작했다. 다음 작품이 더 기대된다"며 신인배우처럼 눈을 빛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팬들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다. "전에는 배우가 연기만 하면 되지 예능에는 출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팬들이 생각 이상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선입견을 깼어요. 앞으로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겠다고 결심했죠."

◆ 베드신 '액션만큼 힘들어'

처음 해 본 베드신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쉽지 않았다. 경험이 별로 없어서 긴장하기도 했고, 김진평의 절절한 사랑이 자칫 육체적인 사랑으로 비춰질까봐 걱정도 됐다.

"어떻게 하는 것 대한민국의 어떤 배우보다 잘 해보자고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액션신처럼 힘들었어요. 컷 할 때마다 마치 100m를 뛰고 온 것처럼 호흡이 거칠어져 물부터 찾았어요. 감독님이 베드신 촬영 일정을 며칠 간격으로 나눠서 잡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하하."

베드신 만큼은 김대우 감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송승헌은 "첫 촬영 때 감독님이 일일이 시범을 보여줬다. 그 쪽('19금' 멜로) 선배지 않나. 스태프가 없을 때는 베개를 잡고서 한 컷 한 컷 자세를 취했다. 웃으면서 배려해줘 좋았다"고 고마워했다.

그러면서 "최종본을 보니 생각보다 많이 수위 조절이 됐다"면서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영화"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향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맹목적인 사랑이 있을까 싶지만 송승헌은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진평의 모습은 송승헌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와 비슷해요. 저도 가슴 아파서 숨을 못쉬는 사랑을 해봤죠. 만약 누군가가 행복한 가정과 배우의 성공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는다면 전 가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직도 운명적인 사랑을 꿈꾼다. "첫사랑을 만날 때 번개가 치는 걸 느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의 사랑은 네 명이었고요. 나이가 드니까 형과 누나가 선이라도 보라는 말을 꺼내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제 일을 지분히 하면서 운명을 기다리고 싶어요."

/박은혜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호호호비치 디자인/최송이

> 청춘스타 울타리 넘은 느낌
> 김대우 감독 베드신 큰 도움
> 지금도 운명적인 사랑 꿈꿔

김희선 / 대니간성성 방송 캡처

김희선 中 예능프로 출연

배우 김희선이 중국 강소위성TV 예능프로그램 '대니간성성'에서 탄탄함을 보였다. 한류 여배우로서는 첫 출연이다.

김희선은 지난 9일 '대니간성성'에서 소탈한 성격 그대로 인터뷰를 했다. 외모도 꾸미지 않았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 촬영을 해야 했던 그는 극중 차해원의 복장으로 등장했다. 김희선은 "차해원은 공주처럼 자라다가 아빠의 죽음을 계기로 억척스러워진 인물"이라며 "원래 성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희선은 성룡과의 친분도 언급했다. 두 사람은 2005년 영화 '신화-진시황릉의 비밀'로 호흡을 맞췄다. 그는 지난달 6일 드라마 촬영 중에도 성룡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 베이징 공인체육관에서 열린 성룡 자선 콘서트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희선은 중화권 팬들에게 "중국에서 좋은 일 많이 할 테니까 한류 배우들 오래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달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대니간성성'은 '한국어로 '별을 찾아간 우리'라는 뜻이다. 한류 스타들의 인터뷰와 한국 드라마 대중문화를 다루는 중국 내 한류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 배용준·김수현·김현중 등이 출연했다.

/권효정 기자 [illegible]

화영의 섹시 건강미 그룹 티아라를 탈퇴한 화영이 건강미가 돋보이는 화보로 새 출발을 알렸다. 그는 패션지 그라치아 5월호에서 다양한 스포츠 소품들을 활용해 발랄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드러냈다. 소속사를 옮긴 화영은 연기자로 변신을 준비 중이다. /유순호 기자 suno@

'달래 된, 장국' 제2막 시작

아역에서 성인으로 전환 연기 부제 '12년 만의 재회' 타이틀

JTBC 주말극 '달래 된, 장국-12년만의 재회'(이하 '12년만의 재회')가 성인 연기자들의 등장과 함께 제2막을 올렸다.

15일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12년만의 재회' 세트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엔 이소연과 남궁민을 비롯해 배종옥, 지수원, 데니안, 김시후, 이태임 등이 참석해 각오를 다졌다.

지난 12회까지 장국과 준수는 아역 배우 윤소희와 이원근이 연기했으며 13회부터 등장할 성인 장국과 준수는 이소연과 남궁민이 맡았다. 성인 연기자의 등장과 함께 '달래 된, 장국'은 부제 '12년만의 재회'를 타이틀로 교체하며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이날 이소연은 "오랜만에 착한 역할을 맡았다"며 "악역은 할 땐 촬영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했는데 이번 드라마는 참 편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궁민은 "아역들이 잘 해줘서 부담이 크다"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극중 장국은 2002년 월드컵 응원 때 첫사랑 준수를 만나 고3이란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유산까지 하는 아픔을 겪는 인물이다. 어른들의 권유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이름을 달래로 바꾸고 제2의 삶을 산다. 13회부턴 달래가 된 장국이 준수와 12년 만에 재회하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달래 된, 장국'의 남궁민(왼쪽)과 이소연. JTBC 제공

이소연은 "극중 달래는 준수를 알지만 그는 날 모른다"며 "준수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달래에게 접근하는데 달래는 준수가 미우면서도 여자에게니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에 실망한다"고 설명했다. 극중 달래의 엄마 최고순을 연기하는 배종옥은 "두 사람의 재회가 마치 영화 '이터널 선샤인' 같다"며 "상처가 너무 커서 사랑의 기억마저 지우고 싶지만 운명처럼 다시 이끌리는 달래와 준수가 꼭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12년만의 재회'는 고3 시절 철없는 사고로 헤어졌던 두 남녀가 12년 후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김지민 기자 [illegible]

활동방향? 팬들에게 물어봐

가수들 쌍방향 소통 외부 의견 적극 반영

최근 신곡을 발표한 가수들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쌍방향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앨범의 타이틀곡 선택권을 팬들에게 주는가 하면 콘서트 세트 리스트 구성에도 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유로운 소통을 하고 있다.

이승환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팬들과 실시간 채팅을 나눴다. 팬들의 궁금증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이날 이승환은 정규 11집 중 두 번째 후속곡 '화양연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컴백을 앞둔 플라이투더스카이는 15일 트위터로 팬들과 만났다. 이번 트위터 Q&A는 오랜만에 팬들을 위해 진행되는 특별한 이벤트로 컴백을 앞둔 플라이투더스카이가 팬들의 질문에 답하며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라이투더스카이

이승환

플라이투더스카이는 15일 뮤직비디오 2차 티저영상을 공개하며 오는 20일 정규 9집 '컨티뉴엄'으로 컴백한다.

앞서 지난 2월 가수 선미와 씨엔블루도 SNS를 통해 팬과 Q&A를 진행한 바 있다.

/정성준 기자 [illegible]

칸의 여왕 미모 발산 14일 개막한 제67회 칸 영화제에 경쟁 부문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전도연이 아름다움을 과시했다. 개막식날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심사위원 기자회견에 등장한 그는 함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세계적인 유명인사들 사이에서 단연 빛나는 미모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로이터 연합뉴스

▶ 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심사위원이네요. /박신원기자

초능력·IQ 150은 돼야

천재 의사·수재 경찰 이색 캐릭터 줄이어

의사·검사·재벌로도 부족하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독특한 능력이 눈에 띈다. 올 초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김수현은 초능력을 지닌 도민준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이종석(왼쪽 사진)과 이승기(오른쪽)가 판타지물에 등장할 법한 의사와 경찰을 연기하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인물의 성격을 만화적 설정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라며 "과장될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이종석은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에서 천재 의사 박훈으로 열연 중이다. 박훈은 손만 대도 신체의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 예뜬 아이의 아빠가 숨을 기쁘게 몰아 쉬자 가슴에 손을 댔다. 이내 그의 눈에는 아빠의 폐가 보이고 편직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증상을 파악했다.

박훈의 천재성은 수술 상황을 가상 시연하는 데에서 극대화된다. 지난 4회 방송에선 박훈의 천재적인 집중력이 긴장감 있게 그려졌다. 뇌암 말기 판정을 받은 오수현(강소라)의 엄마를 수술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다. 눈을 감았다 뜨면 말기 암 선고를 받은 뇌가 보이고 박훈은 섬세한 손기술로 수술을 상상한다. 실패하는 돌발 변수도 예측 가능한 점이 그를 최고 의사로 성장시키고 있다.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이승기는 아이큐 150에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지닌 천재 신입 경찰로 출연한다. 그가 맡은 은대구 역은 굉장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다. 명품 브랜드를 검색해 기억한 후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착용한 옷·액세서리와 브랜드 이름이 겹쳐 보이는 식이다. 은대구는 가짜 명품으로 무장한 꽃뱀을 검거하는 데 큰 활약을 했다.

글과 그림만으로도 특정인의 성향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수사극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스토커의 성향을 SNS에 글을 게재하는 시간과 글을 쓰는 방식 등으로 단시간에 정확하게 파악했다. 성향에 변화가 생긴 것까지를 섬세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해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수사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정덕현 평론가는 "천재 의사와 뛰어난 형사는 드라마를 통해 많이 다뤄졌다"며 "기본적인 능력에 독특한 걸 추가하는 방식으로 슈퍼히어로물을 연상케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완호준기자 jhcash@metroseoul.co.kr

스칼렛 요한슨 vs 최민식 액션 충돌

'루시' 2차 예고로 기대감↑

스칼렛 요한슨(사진)과 최민식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루시'가 2차 예고편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최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2차 예고편은 요한슨의 강렬한 눈빛과 박진감 넘치는 총격신 등으로 시선을 압도한다. 겁에 질린 채 어딘가로 끌려갔던 루시(스칼렛 요한슨)가 모든 사물을 느끼고 통제하는 능력을 갖게된 가운데 그 능력이 점차 진화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어 어떤 내용이 전개될 지 궁금하다.

내용뿐 아니라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요한슨과 최민식의 연기 호흡은 관객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9월 개봉할 '루시'는 최민식의 첫 번째 해외 진출작이자 뤽 베송 감독, 스칼렛 요한슨, 모건 프리먼 등 세계적인 감독·배우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정순호기자 sun@

'군도' 해외서 먼저 알아봤다

국내 개봉 전 칸 마켓 북미·유럽 선판매

'군도: 민란의 시대' 포스터

하정우와 강동원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이하 '군도')가 14일 개막한 제67회 칸 영화제 마켓에서 북미와 유럽에 선 판매됐다.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는 '군도'가 칸 영화제 마켓에서 한국 영화의 해외 시장 중 가장 주요한 마켓인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미 지역을 비롯해 프랑스어권 유럽, 독일어권 유럽, 아시아 지역의 배급 계약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북미 지역 배급권을 구매한 웰고USA는 '아저씨' '고지전' '마이웨이' '도둑들' '신세계' 등의 북미 배급을 진행한 곳으로 최근에는 '변호인'을 극장 개봉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스위스·모나코 등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유럽 지역의 판권을 구매한 메트로폴리탄 필름엑스포트는 '도둑들'의 배급을 진행한 회사다. 윤종빈 감독과는 전작인 '범죄와의 전쟁'에 이어 두 번째 인연으로 눈길을 끈다.

독일·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유럽과 네덜란드에 배급하게 된 스플렌디드 필름은 최근작인 '용의자'를 비롯해 '악마를 보았다' '놈놈놈' '아저씨' '최종병기 활' 등 선 굵은 한국 장르 영화들을 구매한 회사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의 캐치플레이 미디어, 인도네시아의 PT 프리미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군도'는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이 판치는 세상을 통쾌하게 뒤집는 의적들의 활약을 그린 액션활극으로 7월 23일 국내 개봉한다.

/하희철기자 tsk1427@

고품격 뮤지컬 콘서트 일본 팬 열광

김준수 오케스트라·밴드 라이브 3만3000팬 감동

JYJ의 김준수(왼쪽 사진)가 고품격 라이브 무대로 일본 팬들을 사로잡았다.

13일부터 3일간 도쿄 요요기 경기장에서 열린 '2014 XIA 더 베스트 발라드 스프링 투어 콘서트 인 재팬'에서 한 회에 1만1000명씩 총 3만3000석이 모두 매진됐다. 이번 공연에서 김준수는 20명의 오케스트라, 7인조 밴드와 함께 뮤지컬 넘버·발라드·OST 등을 불렀다.

김준수가 일본에서 뮤지컬과 발라드를 콘서트로 공연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 같은 음악에 감동했다고 공연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팬들을 위해 '슬픔의 향기' '스토리' 등 일본 발라드를 준비했고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시절 일본에서 불렀던 주요 곡들을 오케스트라 편곡 후 메들리로 구성해 팬들에게 추억을 전했다.

소속사는 "뮤지컬을 즐기는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다. 김준수가 출연한 '엘리자벳'은 일본에서도 인기다. 일본 팬들은 김준수의 뮤지컬을 보기 위해 기꺼이 한국을 찾는다"며 "그의 뮤지컬에 매료돼 한국 뮤지컬을 사랑하게 됐다. 이번 뮤지컬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이 기뻐했다"고 일본 공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공연장을 찾은 한 팬은 "몇 편의 공연을 한 번에 만난 느낌이다. 150분 내내 깊은 울림을 느꼈다. 라이브 오케스트라와 함께 속삭이며 감미롭게, 때로는 파워풀하게 노래하니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힘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뮤지컬 스타 정선아는 이날 공연에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김준수와 함께 '모차르트!'와 '엘리자벳'의 넘버를 불렀다. 또 자신이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 '위키드'의 넘버와 일본인에게 인기가 높은 '퍼스트 러브'를 일본어로 부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꽃미남 래퍼 대형 힙합파티

빈지노·산이·그레이 등 '원 힙합' 개최

빈지노 산이

음원 차트를 주름 잡는 꽃미남 래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빈지노·산이·그레이·로꼬·크루셜 스타 등 최근 음악계를 강타하는 힙합 뮤지션들이 17일 홍대앞 예스24 무브홀에서 '원 힙합 Vol.3 블라썸'이라는 이름으로 7시간 동안 릴레이 힙합 파티를 벌인다.

산이는 파격적인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고 빈지노는 최근 정기고의 신곡 '너를 원해'의 피처링을 맡았다. 로꼬는 데뷔 곡 '감아'로 신인으로는 이례적인 차트 장악력을 보여줬다. 그레이는 로꼬의 앨범을 비롯해 리쌍 개리의 솔로 앨범, 박재범 앨범 등을 프로듀싱한 실력파 힙합 뮤지션이다.

이들은 실력뿐 아니라 훈훈한 외모로 여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의 여성 예매율은 80%에 이른다고 주최측이 밝혔다. '블라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드레스 코드를 꽃과 관련한 스타일로 정했다.

/유순호기자

세계 정상 DJ 사샤 UMF코리아 출연

내달 13일 무대 앞두고 4차 라인업 공개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4(이하 UMF코리아 2014)'가 4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다음달 13일 첫날 헤드라이너로 DJ 듀오 시크 인디비주얼스가 나선다. 14일에는 세계 최정상급 DJ이자 작곡가인 사샤가 무대에 오른다. 또 호주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스, 프랑스 출신 DJ 듀오 메이크 더 걸 댄스 등도 출연을 확정했다.

개그맨 박명수가 3차 라인업에 G. 팍이라는 예명으로 이름을 올린데 이어 DJ DOC의 이하늘이 DJ 난리부르스라는 이름으로 출연한다. 가수 박재범도 DJ로 4차 라인업에 소개됐다.

더욱 강화된 라이브 스테이지에는 일본 인기 인디 밴드 피어 앤 로우딩 인 라스베이거스와 국내 유명 밴드 넬의 스페이스가 합류한다. 유명 프로듀서인 이단옆차기가 피처링 하는 제이슨 리 트라이브, 실험적인 새로운 사운드를 들려줄 러브엑스스테레오 등의 출연도 확정됐다.

언더그라운드 스테이지에는 국내 1세대 DJ 영쿤을 비롯해 제레미 분, DJ 코난, 리스트앤더스트, DJ 장, 스티브 우, 바가지, 윤진, 수리, 펙스퀀 등도 나선다. 국내 대표 여성 DJ 중 하나인 예쉬도 이번에 새로 추가된 언더그라운드 스테이지에서 일렉트로닉 뮤직을 선보인다.

UMF코리아 2014는 잠실 종합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서문 주차장 등에서 공연된다.

/유순호기자

재즈 피아노 거장 칙코리아 내한

게리 버튼과 내달 합동 무대

재즈 피아노의 거장 칙 코리아와 비브라폰 연주자 게리 버튼이 다음달 14일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합동 내한공연을 연다.

이들 듀오의 내한공연은 2007년 이후 7년 만이다. 1960년대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활동을 시작한 코리아는 퓨전 재즈를 대표하는 밴드 '리턴 투 포에버' 등에서 활약하며 지금까지 미국 그래미상에 59차례 후보로 올라 20번 수상했다. 허비 행콕, 매코이 타이너, 키스 재럿과 함께 존 콜트레인을 잇는 재즈 피아노의 거장이다.

버튼은 버클리 음대에서 팻 메스니 등 수많은 아티스트를 기른 재즈계 대부로 손꼽히는 연주자다. 재즈 비브라폰 연주를 발전시키고 현대화해 후대 연주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는 마치 두세 사람이 동시에 연주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주법으로 유명하다.

코리아와 버튼의 만남은 1972년 첫 듀오 앨범 '크리스털 사일런스'와 1979년 '듀엣'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2012년 발표한 앨범 '핫 하우스'로 지난해 그래미 어워드를 거머쥐기도 했다.

/장병호기자

절친 추신수·이대호 '평행이론'

올해도 '동반포'…같은 날 시즌 첫 홈런·연속 안타

추신수

이대호

부산 출신 32세 동갑내기 절친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와 이대호(소프트뱅크 호크스)가 각각 미·일 프로야구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일 약속이나 한 듯 시즌 첫 동반 홈런을 달성한 이대호와 추신수는 14일까지 각각 4경기,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이대호는 14일 일본 지바의 QVC 마린필드에서 열린 지바 롯데 마린스와의 원정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해 4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타율은 0.273에서 0.280으로 올랐다.

추신수는 14일 미국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1번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1타수 1안타 1사구를 기록했다. 6회 선두타자로 나서 143km 초구를 받아쳐 우전안타를 만들었다.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타율은 0.328을 유지했고 출루율은 0.457로 소폭 상승했다.

이대호와 추신수의 이같은 성적은 언제나 비슷했다. 둘의 홈런포는 지난해에도 경쟁이라도 하듯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국가별 시차가 있지만 같은 날 나온 홈런은 4번이나 된다. 하루의 시차를 둔 홈런도 5개로, 2013시즌에만 무려 9개의 '절친포'가 터졌다.

여기에 두 선수는 계약 소식마저 하루 차이로 알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추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와 미국 메이저리그 외야수 계약 역사상 6위에 해당하는 7년 총액 1억3000만 달러(약 1380억원)에 계약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대호는 이튿날인 23일 2년간 몸담았던 오릭스 버펄로스를 떠나 2+1년 총액 19억 엔(약 194억원)에 소프트뱅크 호크스로 둥지를 옮겼다.

'빅보이' 이대호와 '추추트레인' 추신수의 평행이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희철기자

고척돔 내년 넥센 품으로…

운영권·사용료 협의 남아

국내 최초 돔구장인 고척돔(사진)이 내년부터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된다.

서울시와 넥센은 2015 시즌부터 홈구장을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돔구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구장 운영권과 사용료를 놓고 양측에 이견이 있어 원칙적인 합의만 하고 최종 계약은 9월 말쯤 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완공을 앞둔 고척돔은 2만2000명 수용규모의 실내 야구장으로 2007년 하프돔 형태로 공사를 시작해 2009년 4월 완전한 돔구장 형태로 설계 변경됐다.

넥센은 고척돔 완공 이후 한 달간 시범경기를 한 뒤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정규시즌을 치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넥센이 난색을 표해 온 연간 80억원 규모의 운영비 문제에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잠실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LG와 두산은 서울시에 연간 25억여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희철기자

넥센, 외국인 투수 소사 영입

KIA 출신…나이트 대체

지난해 LA 다저스와 마이너 계약을 체결한 헨리 소사(사진)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넥센은 15일 오후 "외국인 투수 브랜든 나이트의 대체 선수로 투수 소사와 영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넥센은 소사의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15만 달러, 그리고 옵션은 별도로 하는 조건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넥센은 이적료에 대해서는 소사의 보유권을 가지고 있는 LA 다저스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사는 2012년 시즌 중반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그해 23경기에 등판해 9승 8패 평균자책점 3.54를 기록했다. 1차 지례 완투를 펼쳤으며 그 중 한 번 완봉승을 거두기도 했던 소사는 재계약에 성공, 지난해에도 KIA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2013년 소사는 29경기에 등판해 9승 9패를 거뒀고 평균자책점은 5.47로 크게 높아졌다.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뿌리는 소사는 제구가 잡힐 땐 상대에 압도적인 투수였으나, 제구가 흔들릴 때마다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LA 다저스 마이너 계약을 맺고 한국을 떠났다.

/하희철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루이스 판 할(사진)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고 임시 감독이었던 라이언 긱스를 코치로 기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ESPN은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맨유가 판 할 감독 선임을 발표할 예정이며 긱스는 코치직을 제안받았다고 보도했다.

ESPN은 긱스가 15일 네덜란드의 한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소개하고 판 할 감독이 이날 네덜란드 대표팀 훈련 캠프를 하루 비우고 있었다고 덧붙이며 두 사람이 만났다고 전했다.

맨유는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이 떠나고 올 시즌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이 팀을 이끌었으나 성적 부진으로 지난달 경질됐다. 이후 차기 사령탑 유력 후보로 판 할 감독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판 할 감독은 최근 "맨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구단이고 맨유 감독직을 맡는 것은 멋진 도전"이라며 맨유 감독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선수로서 맨유의 '레전드'로 활약한 긱스는 모이스 감독 경질 이후 선수 겸 감독으로 2013~2014시즌 잔여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장성훈기자

프로야구 전적 (15일)

■ 잠실

롯데	030	022	020	9
LG	000	001	030	4

■ 문학

두산	003	010	204	10
SK	001	000	000	1

■ 대구

한화	100	000	001	001	3
삼성	000	200	000	001	3

■ 마산

KIA	100	212	000	6
NC	000	000	032	5

여자축구 아시안컵 전적 (15일)

한국	12	0	미얀마